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갈테야테야, 독서하러갈테야

	일시	11월 9일 17 : 00 Webex 비대면 미팅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윤(2292063)		O
	주희(2292078)		O
	정예원(2311195)		O
	이예빈(2494014)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	진도페이지:	1 p. ~ 6 p.
1주차	<p>[좌측 상단부터 김지윤, 주희, 이예빈, 정예원 ...]</p>		
토론 내용	<p>이번 시간은 1주차 시간이니만큼 해당 도서 중 어느 단편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을지 책의 목차부터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읽어올 단편을 1주차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 2주차 '무덤 속으로', 3주차 '어스'로 선정했다. 그리고 SF 소설의 유행에 대해 가볍게 논의했다. 주희, "소설 시장이 점점 고착화되면서 레드오션이 되었다. 일반 로맨스 등의 장르는 뻔해지고 소재가 바닥나다보니 자연히 SF로 옮겨오게 된 현상이 아닐까. 더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예측서 느낌으로 쓰는 걸 수도 있다." 지윤, "설정에서 새로움을 느끼지만 읽다보면 결국 익숙함을 느끼곤 한다. 결국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어차피 사람 사는 이야기인 것이다." 예원, "SF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뒤집어보는거라 비판적인 성격이 세다. 보다보면 자동으로 질문을 받는 느낌이다." 예빈, "막연히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문제로 다가올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SF라는 것 자체가 먼저 설정을 부여하고 시작된다. 그렇기에 요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쓰는 것 같다."</p>		

	일시	11월 11일 17 : 00 그룹스터디실(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윤(2292063)	O	
	주희(2292078)	O	
	정예원(2311195)	O	
	이예빈(2494014)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	진도페이지:	309 p. ~ 373 p.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정예원, 김지윤, 강호정 교수님, 이예빈, 주희 …]</p> <p>먼저, 단편 '크림의 무게를 읽는 방법'을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 지구가 점점 물에 잠기면서 전기 수급이 어려워지고 한순간에 해양 원자력발전소에 탑재된 최첨단 인공지능 '안젤리카'가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도래한다. 인간들은 영혼이 되어 센터 내 기계에 머무른다. 40억 명의 인구 중 무작위로 단 10개의 바디 수트에 주입된 영혼들은 인간과 비슷한 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24시간 동안 황폐해진 도시 곳곳을 누빈다. 지윤, "소수의 인간들이 나진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이었던 영혼들이 부착된 상태인데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주희, "테세우스의 배를 계속 고쳤을 때 그 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가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떠오른다." 예원,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이 없어지고 숲이 복구되었다는 언급을 보면, 지구 입장에서 인간이 문제다." 주희, "만약 내가 데이터화가 됐다고 하면 나는 삭제할 거 같다.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지루할 것 같다." 예원, "나도 만약 죽는다고 하면 나진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만난다는 게 이유일 것 같다." 주희, "실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되면서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장면이 생각났다." 예원, "인간중심주의와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작품이 계속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예빈, "결국 AI와 AI 안에 있는 무언가랑 덮어쓰기를 한다. AI가 학습한 감정도 모성애이다." 지윤, "퀴어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여기는 젠더에 대한 구분, 차별도 없다. 우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다." 주희, "추억이 한 곳에만 남아있다는 게, 내 의지로 꺼내볼 수 없다는 것이다. 추억을 되새기는 거에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부당한 것 같다."</p>		

	일시	11월 18일 17 : 00 그룹스터디실(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윤(2292063)	O	
	주희(2292078)	O	
	정예원(2311195)	O	
	이예빈(2494014)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	진도페이지:	179 p. ~ 225 p.
3주차	 <p>[좌측부터 김지윤, 주희, 정예원, 이예빈 …]</p>		
토론 내용	<p>먼저, 단편 ‘무덤 속에서’를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 부쩍 늘은 인구수로 사용 가능한 토지가 점차 좁아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우주납골당 프로젝트’. 지구에서 20 일 간격으로 쏘아올리는 유골함에 블루투스를 연결해 우주 납골당으로 끌고 오는 시스템이다. 지불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고, 죽은 사람들은 치워지듯 우주로 쏘아올려진다. 3년 동안 납골당을 관리하는 묘지기는 지구에서 단 한명만 모집한다. 지윤, “교체되지 않은 몸을 가진 연우의 팔에 성주가 나사를 박는 결말은 같은 재질의 몸이 되고 싶은 성주의 소망 같다.” 주희, “연우가 묘지기가 되고 싶은 앤데 기계 몸은 결격 사유라 연우의 꿈을 짓밟는 행위다.” 예원, “정상성을 규정하려고만 해서 그렇지 우주적 시선에서 보면 성연과 주연이 자매, 혈연관계라는 건 상관이 없다. 그냥 사랑 이야기이다.” 주희, “여기서 교체되지 않은 몸이 의미하는 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노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몸을 기계로 교체해야하는거다. 그래서 성주가 연우한테 나사를 박은 게 권위의 도전, 즉 계급질서의 붕괴인 셈이다.” 예원, “사람이 기계 몸이 되는 미래에도 대학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학별주의 못버리는 게 좀 웃기다.” 지윤, “산소를 살 돈이 없으면 폐를 갈아껴야한다는 말이 나온다. 몸의 교체 범위를 생각해봤는데, 돈이 없는 하류층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장기 위주로 교체하는 것 같다.” 예원, “어쩌면 주연이 자신인 육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임신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애를 끝까지 낳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주희, “테세우스의 배처럼 너무 바뀌어서 아직도 정체성이 그대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 비슷한 결로 가는 것 같다.” 예빈, “성주 아빠가 한 너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게 두지마라는 대사가 모든 인물에게 통용되는 말 같다.”</p>		

	일시	11월 25일 17 : 00 그룹스터디실(3F-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지윤(2292063)	O	
	주희(2292078)	O	
	정예원(2311195)	O	
	이예빈(2494014)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	진도페이지:	131 p. ~ 178 p.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이예빈, 김지윤, 강호정 교수님, 정예원, 주희 …]</p> <p>먼저, 단편 '어스'를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 2074년 인간의 몸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인간의 몸에서 꾸준히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발산하면서 인간을 매장하는 게 쓰레기를 묻는거나 다름없어진다. 각종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지구는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마침내 인간의 몸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환경협약표준에 의해 '산업쓰레기'로 분류된다. 인간 매장과 화장도 금지되고 오직 인간 매립지만이 남는다. 주희, "네오시티라고 친환경 에너지를 자가 생산하는 아파트가 등장한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세금도 면제된다. 반대로 에코피아는 환경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된다. 그럼 중산층에게 모든 세금이 몰린다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환경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원, "작중에서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졌다고 언급을 한다. 돈이 많으면 유기농,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지윤, "보통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이 암울하고 어두운 디스토피아물이다. SF 소설이 보면 소재만 그럴 뿐, 들여다보면 다 인간을 말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주희, "모더니즘 같은 건 기존의 질서에 반발해서 생겨나는 거 보면 이상을 꿈꾸다가도 현실을 사는 것처럼 SF도 그중 하나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예빈, "외국 SF와 우리나라 SF는 차이가 있다. 인터스텔라나 스타워즈 같이, 설정이 좀 더 세세한 느낌이다." 예원, "보면 볼수록 결국 돈이다. 세상이 이지경이 되어도 사람들이 보는 가치가 똑같아서 지겹다." 주희, "깨끗한 산소를 공급 받는 게 계층마다 다르고, 사회의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 같다."</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지윤 (2292063)	한 달간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 속 여러 단편을 읽고 토론하면서, SF가 단순히 미래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나 사회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르라는 것을 느꼈다. 읽는 내내 '정상성'의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 실감했던 것 같다. 토론이란 으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이지만, SF장르라 그런가 그 범위가 더 크게 느껴져서 흥미로웠다.
	2	주희 (2292078)	평소 잘 읽지 않는 장르의 책을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았다.
	3	정예원 (2311195)	독서클럽에서 이 세 작품을 읽으며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SF 장르도 문학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평소에는 SF를 기술적 상상력의 영역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작품들은 그 외피 아래에 성정체성, 존재의 본질, 사회의 규범성 같은 질문들을 깊이 있게 담고 있었다. 독서클럽 친구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누었다. ‘몸이 없는 세계에서 성 정체성은 어떻게 정의될까?’ ‘기억만으로 존재를 판단하는 사회에서,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는 구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든 것일까?’ 이 질문들은 우리가 작품을 읽기 전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문학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해석의 층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4	이예빈 (2494014)	한 책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활동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 이번 활동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평소 잘 읽지 않는 한국 문학을 읽어서 되게 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	성명 (학번)	